


공동체 소식



대림 제4주일

주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12월 기도지향

-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올리안나 가정

■ 지난 주일 오후, ‘자비의 특별 회년 기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와 행사 안내

- 12/22(화) 평일미사 오후07:30.
- 12/24(목) 오후07:30: 구유경배 예절 및 밤 미사(매일미사 117쪽)
- 12/25(금) 오전11:00: 낮 미사(매일미사 131쪽), 성탄선물 봉헌.
- 12/25 낮 미사 후: 성탄잔치 (음식나눔 잔치와 기쁨나눔 잔치-주관: 행사부)
- 안내: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새로운 해에도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분당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평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송년미사

- 일시: 12/31(목) 오전10: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일시: 01/01/2016(금) 오전11:00.
- 내용: 이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며, 신앙인들이 꼭 미사 참례해야 하는 의무 축일입니다.

성탄전례 연습

- 일정: 12/20(주일) 교중미사 후.
- 대상: 성탄전례와 관련되는 모든 분

■ 1월 예수성심 및 성모신심미사는 없습니다.

■ 총구역회 모임 및 1월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 본당간판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안내: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때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말씀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봉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한 그 봉헌에 백배가 붙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더 내지 못해서 오히려 아쉬울 것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91	212	175	9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김정원 안젤라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아람 크리스티나 선하서 미카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조경희, 김계숙, 조지연
차주	박정자, 김경돌, 한순례, 정지현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13	68명	466불	980불
김태중, 현주용, 차호섭, 김정훈 (총 4세대) 특별헌금: 정지현 100불(지향-복사단)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인 대림 제4주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아들이신 성모님을 복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오셨음을 믿고 기다리며, 임박한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림 묵상

두 여인의 만남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눕니다.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고 두 여인의 찬미가 따뜻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한 두 분의 만남은 우리에게 구원의 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정미연 소화테레사

제 1 독 서 :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5,1-4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화 답 송 : 

하 느 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 되 리 이 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0,5-10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9-45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대림절 막바지인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유다 산골의 예인 케렘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나자렛에서는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인 케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자신처럼 신비롭게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선택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행복하다(마카리오스)”로 시작되는 말을 대개 ‘참 행복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참 행복 선언은 산상 설교에 나옵니다(마태 5,3-10). 루카 복음에도 참 행복 선언이 자주 등장하는데, 간추려 보면 가난한 이들(루카 6,20),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루카 6,21),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쫓겨나고 모욕받는 이들(루카 6,22),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들(루카 7,23),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루카 10,2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루카 11,28), 재림 때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38.43),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는 이들(루카 14,13)이 참으로 행복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루카 복음에서 참으로 행복한 이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지닌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사는 이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리로 내려간 이들, 예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행복하다고 외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여인이 “당신을 배신 태와 당신에게 젖 먹인 가슴은 복됩니다”라는 행복 선언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됩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루카 11,27-28). 결국,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그분의 뜻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스스로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삶을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마련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질릴 것이라는 시메온의 예언(루카 2,34)처럼 큰 고통을 겪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함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아들의 죽음을 참아 냅니다. 이런 마리아였기에 결국 부활한 아들을 직접 보게 되었고, 처음 아들을 잉태할 때 받아들였던 성령을 다시 입게 됩니다(사도 1,14).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 영원한 화관을 쓰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대림초가 켜졌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권력,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주님의 구원과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하느님의 용감한 종, 오바드야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는 비탄과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티나 남쪽에 살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는 등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때 오바드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에돔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릴 것이라 예언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오바 1,1-4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야곱과 에사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에돔은 기원전 8세기경에 독립했습니다. 에돔은 사실 에사우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야곱의 후손들과 형제국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에돔인들은 이를 고소하게 여기면서 약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노예로 사서 이득까지 취하였습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바위굴이 많고 자연적인 요새가 많은 산악지대로,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바드야 예언자는 에돔인들의 야비하고 잔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에돔 민족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오바 1,5-18

오바드야란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에돔의 죄악은 형제간의 불화,동족간의 분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나 이웃의 고통과 수난에 눈감고, 도리어 그 틈을 타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파렴치한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직접 수탈하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고소해 하고 빈정거린다면 그것도 분명히 죄악입니다.

에돔에 벌을 내리겠다는 오바드야의 예언은, 하느님께서는 부당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결국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 임의준 신부(서울대학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3